

『신자전』의 자석(字釋) 어휘 연구*

- 기초한자 자석 수록 비교를 중심으로 -

서수백**

〈차 례〉

1. 머리말
2. 수록 자석 어휘 분석
3. 마무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자전』의 자석(字釋) 어휘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자전』 자석 수록 특징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자석이 1對多로 나타나는 기초한자 62자를 대상으로 16세기의 『훈몽자회』에서부터 19세기의 『주해천자문』과 『자류주석』, 20세기의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자석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신자전』은 이전 시기 자석 자료들에 수록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4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조교수.

된 자석뿐만 아니라 의미 범주를 확장한 품사 형태나 유의어 형태, 특이형태 단어 등을 풍부하게 자석으로 제시함으로써 표제한자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 유연성을 더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한자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고전을 해독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어휘사나 개별 어휘에 관한 연구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다.

주제어: 『신자전』, 『자전석요』, 자석, 1對多, 기초한자,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1. 머리말

이 논문은 『신자전』의 자석(字釋) 어휘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자전』의 자석 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되짚는 데 목적이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한자는 여전히 언중의 언어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완전한 국문 생활이 될 수 없었다. 근대 국한문 혼용 시기에도 국문과 한자의 양방향적 이해가 생활에서 매우 필요했다. 이에 한자 학습과 정보 취득을 위한 공구서(工具書)들이 편찬되었다. 근대 초기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한자 자석을 국문 자석으로 담아내어 실용성을 더한 자전으로 대표성을 띤다. 두 자전의 편찬 시기가 각각 1909년과 1915년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호 비교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¹⁾ 그러나 자전으로서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자석의 수록에 있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1) 본 논문에 활용한 『자전석요』는 범례의 제목이 ‘증정 부도 자전 석요 범례(增正 附圖 字典釋要凡例)’로 되어 있는 1920년 15판으로 197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출판한 영인본이다. 『신자전』은 1973년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육당 전집 편찬 위원회에서 편찬한 영인본이다.

다. 우선, 하나의 표제한자에 제시되는 자석의 수가 1對多로 차이가 난다. 또 제시된 자석의 의미 범주의 차이도 드러난다. 이는 전거문헌의 차이나 편찬 목적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실용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적 특징에 비추어 자전의 자석 정보는 국어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 여찬영, 전일주, 이준환 등의 연구²⁾에서 『자전석요』의 자석 수록이 『신자전』에 비해 매우 간략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자전』의 자석에 집중하여 자석의 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16세기 한자초학서들에 비해 자전은 그 장르적 특성상 자석이 방대하여 연구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체제, 한자음, 자석 등의 세부적 연구들이 축적될 때 더 명확한 학술 결과로서 확장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전석요』와 『신자전』에 자석이 1對多로 나타나는 공통 표제한자 62자를 대상으로 『신자전』의 자석 어휘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석 수록의 개신성을 보이는 문헌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을 『자전석요』, 『신자전』과 비교하여 자석의 양상을 살펴본다.

『훈몽자회』의 표제한자를 기준으로 5개 문헌에서 자석의 수와 의미가 차이가 나는 한자를 추출한 후, 이 중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자석이 1對多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는 한자 62자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62자는 모두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기초한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두 자전의 자석 정보가 매우 다르다는 특징적 양상을 추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

2)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 일홈’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 25권, 2003, pp. 195-313. 전일주, 「강희자전과 한국 초기 자전 비교 연구-『자전석요(字典釋要)』와 『신자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26호, 2006, pp. 357-384. 이준환, 「朝鮮廣文會 편찬 『新字典』의 體裁, 漢字音, 뜻풀이」, 어문연구학회, 『語文研究』 제40집, 2012, pp. 117-142.

다. 이 기초한자 62자를 대상으로 5개 문헌의 자석 제시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신자전』의 자석 어휘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자전의 자석 수록의 방식과 한자 자석 어휘의 가치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며 『신자전』의 자석 어휘에서 국어 어휘 정보가 더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학뿐만 아니라 문헌사, 사전학, 번역학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2. 수록 자석 어휘 분석

『훈몽자회』의 표제한자를 기준으로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 『신자전』에서 자석의 수와 의미가 차이가 나는 표제한자를 추출한 후, 이 중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자석이 1對多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는 한자 62자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62자는 모두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기초한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 62자를 대상으로 5개 문헌의 자석 제시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신자전』의 자석 어휘 수록의 특징을 파악한다.

(1) 陰

『훈몽』: ㄴ들

『주천』: 그늘, 음괴, 음디

『자류』: 그늘

『석요』: 그늘

『신자』: 음달, 음디, 음괴, 부인에게레가르칠, 가만할, 그늘할, 그늘, 비등어리, 음침할

5개 문헌에서 ‘陰’의 자석은 명사 ‘그늘’³⁾이 공통적이다.⁴⁾ 『주해

3) 자석 어휘는 의미 이해가 좀더 쉽도록 현대어로 쓰고 서술한다.

4) 5개 문헌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자석의 의미를 해당 한자의 대표 자석

천자문』에 ‘陰’의 용례 단어 ‘음기(陰氣)’, ‘음디(陰地)’가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 간의 자석 양상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신자전』에는 ‘그늘’의 의미장과는 다른 자석 어휘 ‘부인에게레가르칠’, ‘가만할’, ‘비등어리’가 제시되었다. 이중 ‘가만할’은 중세국어 문헌 『악학궤범』, 『석보상절』, 『원각경언해』 등에 ‘가만히다/ㄱ몬히다’, ‘가만흔’ 형태로 나타난다.⁵⁾ 현대국어 사전에도 ‘가만하다’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석 ‘그늘하다’는 명사 ‘그늘’에 접미사로 ‘하다’가 붙은 형태인데 이는 중세국어 문헌뿐 아니라 여타의 문헌과 사전에서도 찾기 어려운 특이형이다. 이는 ‘지다’를 ‘하다’로 대체한 형태 ‘그늘지다’의 의미로 추측한다. 『신자전』에는 『주해천자문』과 같이 표제 한자 ‘陰’을 활용한 단어 자석도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다.

(2) 野

『훈몽』: 띠

『주천』: 들, 야홀

『자류』: 들

『석요』: 들

『신자』: 들, 들스러울

‘野’의 자석은 ‘들’이 대표적이다. 『훈몽자회』에는 ‘들’의 옛말 ‘띠’로 썼다. 『신자전』에 명사 ‘들’에 접사 ‘스럽다’가 결합한 파생 단어 ‘들스러울’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는데, ‘들스럽다’는 여타의 문헌과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특이형태 단어이다.⁶⁾ 『신자전』에 병기한 한문 자석 ‘치野’를 통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박야(朴野)’의 뜻은 ‘꾸밈없고 순박하다.’이다. 『주

또는 기본 자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악학궤범』, 『석보상절』, 『원각경언해』등에 나타난다.

6) 이는 서재극(1976)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해천자문』의 자석 ‘야홀’ 또한 ‘野홀’로 ‘들스러울’과 같은 뜻으로 짐작하는데 현대국어사전에 ‘아하다’는 다양한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3) 石

『훈몽』: 돌

『주천』: 돌, 섬

『자류』: 돌入

『석요』: 돌

『신자』: 돌, 돌, 섬

‘石’의 자석은 ‘돌’이 공통적이다. 이외 단위명사 ‘섬’⁷⁾이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자석으로 나온다. 『신자전』에 수록된 ‘돌’은 방언형을 반영한 자석으로⁸⁾ 국문 이해 정보를 더하고 있다.

(4) 田

『훈몽』: 밭

『주천』: 밭, 산영

『자류』: 밭

『석요』: 밭

『신자』: 밭, 산양할, 던북, 던차, 런입둥곳둥곳할

‘田’의 자석은 ‘밭’이 공통적이다. 이외 ‘사냥’의 뜻 자석이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각각 명사 ‘산영’과 동사 ‘산양할’로 나온다. 『신자전』에는 둥근 모양을 뜻하는 ‘둥곳둥곳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는데 ‘둥곳둥곳할’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특이 표기 형태이다.⁹⁾

7) 여덟 섬 너 마리러시니(석보상절23:1), 長安에서 쌀 흔 서메 萬錢을 받거늘(두시언해초간본24:35), 비록 여덟 섬 너 말이 나도(남명집언해31), 지두서 섬을 붓가(구급간이방1:75), 몇 섬 특실고(번역박통사상11)

8) 한 심사위원께서 ‘돌’이 경상방언과 전라방언에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9) “田의 자석 ‘런입궁곳둥곳할’은 「강남곡」의 용례에서 가졌왔기 때문에 국

(5) 園

『훈몽』: 위안

『주천』: 동산, 룡침

『자류』: 동산

『석요』: 동산

『신자』: 동산, 룡, 절

‘園’의 자석은 ‘동산’이 공통적이다. 이 외 ‘무덤’의 의미 ‘룡침’, ‘룡’이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나온다. 『신자전』에는 이전의 4개 문헌에 나오지 않는 자석 ‘절’이 있다.

(6) 松

『훈몽』: 솔, 잣나무

『주천』: 솔

『자류』: 솔

『석요』: 솔

『신자』: 솔, 솔나무, 향풀

‘松’의 자석은 ‘솔’이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의 자석 ‘잣나무’는 이후 4개 문헌에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자전』에 ‘나무’가 결합된 ‘솔나무’, 풀의 특성이 의미자질인 ‘향풀’은 ‘식물’의 의미 범주에서 ‘松’의 이해와 활용을 유연하게 한다.

(7) 棠

『훈몽』: 아가외, 땃덜위

『주천』: 아가외

『자류』: 아가외

『석요』: 아가배

어사전에 없는 특이한 자의일 수밖에 없다.”는 한 심사위원의 지적에 『신자전』의 자석 수록 어휘의 범주가 광범위했음을 다시금 알 수 있다.

『신자』: 아가위, 아가배, 사당나무

‘棠’의 자석은 ‘아가위’가 공통적이다. 문헌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수록되어 있는데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의 ‘아가외’는 ‘아가위’의 고어 형태이고,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아가배’는 ‘아가위’의 방언형이다. 따라서 ‘아가위’, ‘아가외’, ‘아가배’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유의 자석이다. 『신자전』에는 ‘아가위’, ‘아가배’ 두 가지 자석 모두 수록되었다. 『훈몽자회』의 ‘댓딜위’는 ‘때절레’인데 이는 ‘아가위’와는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있다.¹⁰⁾ 이후 문헌에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자전』의 ‘사당나무’는 사전 풀이에 의하면 ‘아가위나무’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아가위’와 유의 자석으로 『신자전』에만 수록되었다.

(8) 身

『훈몽』: 몸, 얼굴

『주천』: 몸

『자류』: 몸

『석요』: 몸

『신자』: 몸, 아희뻔, 측지, 교지, 몸소

‘身’의 자석은 ‘몸’이 공통적이다. 같은 의미로 쓰였던 중세어 ‘얼굴’은 이후 문헌에서 자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¹¹⁾ 『신자전』에는 확장 의미의 ‘아희뻔’이나 부사어 ‘몸소’가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측지’와 ‘교지’는 당서(唐書)의 용례 “擬奏授皆給以符謂之告身”

10)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 일홈’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 25권, 2003, pp. 195-313 참조

11) 그러나 『신자전』에는 중세어 자석도 다수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100(百)을 뜻하는 ‘온’이 百의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재극(1976:233)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에 의거해 자석으로 제시한 것이다.

(9) 氣

『훈몽』: 기운, 애드다

『주천』: 기운

『자류』: 기운

『석요』: 기운

『신자』: 기후, 날시, 숨

‘氣’의 자석은 ‘기운’이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에, ‘기후’가 『신자전』에만 나타난다. ‘기운’과 ‘기후’는 둘 다 ‘공기의 상태’를 뜻하는 유의 자석이다. 『신자전』에는 ‘기후’와 ‘날시’를 나란히 제시했고, ‘숨’을 이어 제시하여 동일 의미 범주 안에서 자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훈몽자회』의 ‘애드다’는 이후 문헌에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10) 牀

『훈몽』: 평상, 교상

『주천』: 평상

『자류』: 평상

『석요』: 평상

『신자』: 평상, 우물란간

‘牀’의 자석은 ‘평상’이 공통적이다. ‘의자’와 같은 뜻의 ‘교상’은 『훈몽자회』이후 문헌에는 자석으로 나오지 않는다. 『신자전』의 자석 ‘우물란간(井幹)’은 앞 시기의 4개 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것인데 『樂府』의 용례 “後園鑿井作牀”에 근거한 자석이다.

(11) 芥

『훈몽』: 계줏, 덩가

『주천』: 계죽

『자류』: 갓, 계죽

『석요』: 겨자

『신자』: 겨자, 갓, 집풀아기, 티검불

‘芥’의 자석은 ‘겨자’가 공통적이다. 『자류주석』과 『신자전』에 ‘갓’이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겨자’와 ‘갓’은 둘 다 십자화과의 식물로 색이나 용도가 비슷한 식물이다. 따라서 ‘겨자’와 ‘갓’은 유의 자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훈몽자회』의 ‘덩가(정가)’는 명아쭈과의 풀로 ‘겨자’와 ‘갓’과는 다른 품종의 식물이다.¹²⁾ ‘덩가(정가)’는 『훈몽자회』이후 4개 문헌에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자전』에는 앞 시기 문헌의 자석 ‘겨자’, ‘갓’뿐만 아니라 특정 식물을 지칭하지 않는 ‘집풀아기(지푸라기)’, ‘티검불(티검불)’도 새롭게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12) 目

『훈몽』: 눈, 눈곳

『주천』: 눈, 도목

『자류』: 눈

『석요』: 눈

『신자』: 눈동자, 눈역여불, 조목, 제목, 그물고

‘目’의 자석은 ‘눈’이 일반적인데 『신자전』에는 ‘눈동자’로 보다 구체적인 신체어 자석을 제시하였다. 『훈몽자회』에도 ‘눈’의 세부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눈곳’¹³⁾이 ‘눈’과 같이 제시되었다. 이외 ‘目’의 용례 어휘 ‘조목’이 『신자전』과 『주해천자문』에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제목’이 추가되었다. ‘눈’의 확장 의미

12) ‘겨자’와 ‘갓’의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3) 眼角. 눈구석의 옛말. 『표준국어대사전』

로 ‘눈억여볼’, ‘그물고’¹⁴⁾도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13) 手

『훈몽』: 손

『주전』: 손, 잡을

『자류』: 손

『석요』: 손

『신자』: 손, 잡을, 칠

‘手’의 자석은 ‘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주해천자문』에 ‘손’의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동사 ‘잡을’이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손’, ‘잡을’ 이외에도 이전 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치다’를 자석으로 더하여 ‘손’의 의미 범주를 확장하였다.

(14) 志

『훈몽』: 뜻

『주전』: 기록할, 뜻

『자류』: 뜻

『석요』: 뜻

『신자』: 뜻, 마칠, 기록할, 살촉

‘志’의 자석은 ‘뜻’이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에 ‘기록할’이 ‘뜻’에 앞서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기록할’ 이외에도 이전 문헌에 ‘志’의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은 ‘마칠’, ‘살촉’이 제시되었다. 『신자전』에 제시된 4개 자석 ‘뜻’, ‘마칠’, ‘기록할’, ‘살촉’ 상호간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상이한 자석인데 이는 전거문헌의 한문 자석을 국문 자석으로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¹⁵⁾

14) 그물에 뚫려 있는 구멍 . ㄴ그물눈. 『표준국어대사전』

15) 『신자전』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기반으로 하는데 ‘志’의 자석 역시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心所之意所擬又記也箭鏃誌識通”과 일치한다. 그

(15) 意

『훈몽』: 뜻

『주천』: 뜻, 억탁

『자류』: 뜻

『석요』: 뜻

『신자』: 뜻, 뜻할

‘意’의 자석도 ‘志’와 같이 ‘뜻’이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에 ‘억측(臆測)’과 같은 뜻의 ‘억탁’¹⁶⁾이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자전』에는 ‘억탁’이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동사 ‘뜻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동일 자석을 지닌 ‘志’의 자석 수록 양상에 비해서는 매우 간략한 자석 제시이다. 이는 동일 자석의 한자라도 그 쓰임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父

『훈몽』: 아비

『주천』: 아름다울, 아비

『자류』: 아비

『석요』: 아비

『신자』: 아비, 아바지, 아바임, 늙으신네

‘父’의 자석은 ‘아비’가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에만 ‘아름다울’이 자석으로 먼저 제시되어 있다. 『신자전』에는 ‘아비’의 방언형 ‘아바지’, ‘아바임’과 ‘늙은이’의 존대어 ‘늙으신네’가 자석으로 제시

그러나 『신자전』의 자석이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시대적 언어 환경에 따른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석을 주체적으로 제시한 양상도 상당수 나타난다.

- 16) 『표준국어대사전』에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으로 풀이되어 있으며, 『고어사전』에 ‘억탁(臆度). 억측(臆測).’으로 나온다. 臆度옛 議論 업서(『원각경언해서』 10), 그 도적이 제 살 억탁으로(『계축일기』58)와 같이 중세 문헌에서 나타난다.

되었다. 『신자전』의 자석은 동일 뜻의 어휘 형태를 여러 문법 범주에서 보여준다.

(17) 男

『훈몽』: 아드

『주천』: 벼슬일홈, 스나히, 아들

『자류』: 사나히

『석요』: 사나히

『신자』: 아이, 산애, 남작

‘男’의 자석은 ‘남성’을 공통 의미자질로 하는 ‘아들’, ‘사나히’가 문헌마다 제시되어 있다. 『훈몽자회』와 『주해천자문』에 수록된 ‘아드/아들’은 이후 문헌에 자석으로 나오지 않고 통칭의 ‘남자’나 ‘사나히/사내’, ‘아이’, ‘사내아이’로 나온다. 자석 ‘아들’은 한자 ‘子’의 자석으로 주로 쓰였다. 『주해천자문』에 ‘벼슬일홈’이 자석으로 나오는데 이는 『신자전』에는 ‘남작’¹⁷⁾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18) 伯

『훈몽』: 몰아자비

『주천』: 못, 벼슬일홈, 왕과

『자류』: 만

『석요』: 맛

『신자』: 맛, 컷, 벼슬이름, 남편, 말맛흔별이름, 웃듬

‘伯’의 자석은 ‘컷째’, ‘만’이 공통 의미이다. ‘만’ 단독 자석도 있고 『훈몽자회』의 ‘몰아자비’와 같이 성별 의미자질을 더한 자석

17) 『표준국어대사전』에 ‘남작(男爵)’은 “다섯 등급으로 나눈 귀족의 작위 가운데 맨 마지막 작위. 자작의 아래이다.”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는 『신자전』의 한문 풀이 “爵名五等之末”와 일치한다.

도 있다. ‘몬아자비’는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신자전』에 자석으로 ‘남편’이 있다. 『주해천자문』의 ‘왕파’는 주석 ‘소霸’를 통해 ‘으뜸’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신자전』에는 ‘伯’의 한자음 ‘파’에 해당하는 자석으로 ‘웃뜸’이 제시되어 있다. 『신자전』에는 ‘만’을 현대적 관점에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석으로 ‘첫’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 문헌에 자석으로 나오지 않는 ‘말맛흔별이름’도 있다.

(19) 子

『훈몽』: 아들

『주천』: 벼슬일홈, 그딤, 족식

『자류』: 아들

『석요』: 아들

『신자』: 아들, 자식, 당신, 어르신네, 임자, 임, 사람, 첫재디지, 자시, 자벼슬, 칠, 기를, 열음, 열매, 알

‘子’의 자석은 ‘아들’이 대표적인데,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다양한 자석이 제시되어 있다. 『주해천자문』의 자석 ‘족식’은 좀더 포괄적 의미를 띠는 형태이다. 또 『주해천자문』에 자석 ‘그딤’이 있는데 이는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이것이 『신자전』에는 더욱 확대되어 ‘당신, 어르신네, 임자, 임, 사람’ 등의 대명사 어휘가 자석으로 다수 제시되었다.¹⁸⁾

(20) 威

『훈몽』: 아습

18) 『신자전』편찬에 이인승, 주시경, 김두봉 등 한학자와 국어학자가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을 국문 자석으로 옮기는 데 있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언어로써 자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자석의 보수성을 벗어난 개신적인 자석 수록 양상이다.

『주천』: 겨레, 근심, 도끼

『자류』: 겨레

『석요』: 겨레

『신자』: 독기, 도치, 결에, 분넬, 슬플, 근심할

‘戚’의 자석은 ‘겨레’가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의 자석은 중세어 ‘아슴’인데 이는 이후 문헌에 ‘겨레/결에’로 나온다. ‘겨레’ 이외 자석으로 ‘근심’, ‘도끼’가 『주해천자문』에 있다. 『주해천자문』의 명사 자석 ‘근심’은 『신자전』에는 용언형 ‘근심할’, ‘분넬’, ‘슬플’로 확대 제시되어 있고 ‘도끼’의 방언형 ‘도치’¹⁹⁾도 제시되었다.

(21) 史

『훈몽』: 스긔

『주천』: 스가, 스긔

『자류』: 스긔

『석요』: 사긔

『신자』: 사관, 악, 사긔

‘史’의 자석은 ‘사긔/스긔(사기)’가 일관된다. 확장된 의미로 『주해천자문』에 ‘스가’, ‘사관’이 자석으로 추가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악’도 자석으로 나온다. ‘악’은 한문 주석이 ‘冊也’로 ‘事記’의 뜻이다. 서재극의 연구²⁰⁾에서도 문세영의 국어사전에 근거해 ‘사기(史記)의 옛말’로 언급하였다.

(22) 法

『훈몽』: 법

『주천』: 법, 본바들

19) 도치는 도끼의 경남, 전라, 제주, 충청 방언이다.

20) 서재극,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國文學研究』 5집, 1976, pp. 233.

『자류』: 법
 『석요』: 법
 『신자』: 췌췌함, 형상, 본밭을, 법, 형벌

‘法’의 자석은 ‘법’이 일관된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법’이 외 자석이 수록되었는데 『신자전』에는 모두 5개의 자석이 수록되었다. 이 중에는 ‘법’과 연관된 의미의 자석 ‘형벌’도 있고 별개의 자석 ‘췌췌함’, ‘형상’, ‘본밭을’도 있다. 자석 제시 순서의 특이점도 있는데 『신자전』에는 ‘췌췌함’, ‘형상’, ‘본밭을’을 ‘법’ 앞에 제시하였다.

(23) 稿
 『훈몽』: 글초
 『주천』: 글초, 집
 『자류』: 초잡을
 『석요』: 글초
 『신자』: 벼집, 사초

‘稿’의 자석은 ‘글초’가 공통적인데 『자류주석』에 ‘글초’의 동사형 ‘초잡을’로, 『신자전』에는 ‘사초’로 자석이 제시되었다. 『신자전』에 ‘사초’의 한문 자석이 ‘文草’인 것으로 미루어 ‘글초’와 같은 뜻의 한자어 형태로 보인다. 현대국어 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외 『신자전』에 ‘벼집’이 ‘사초’ 앞에 제시되었다.²¹⁾

(24) 帝
 『훈몽』: 님금, 상데
 『주천』: 님금

21) 『신자전』의 자석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禾稈又文草”과 일치한다.

『자류』: 님금

『석요』: 황제

『신자』: 임금, 인군, 하나님

‘帝’의 자석은 ‘임금’이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에 제시된 2개 자석 중 ‘상테’는 『신자전』에 ‘하나님’으로 수록되었다. 『자전석요』의 자석은 ‘황제’인데 이는 당시의 언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자전』에는 자석 ‘인군’이 있다. ‘帝’의 자석은 『신자전』에 다양한 형태가 수록되었지만 독자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자전석요』의 자석이 좀더 현실적인 자석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5) 卿

『훈몽』: 벼슬

『주천』: 그딕, 벼슬일홈

『자류』: 공경

『석요』: 재상

『신자』: 밝힐, 향할, 벼슬, 귀할

‘卿’의 자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벼슬’이 공통적인 의미로 제시되었다. 『주해천자문』의 ‘벼슬일홈’은 자석 ‘벼슬’에 비해서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홈’ 역시 포괄적인 의미의 자석이다. 『자전석요』에는 구체적인 벼슬의 의미 ‘재상’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벼슬’ 이외 『신자전』에는 ‘밝힐’, ‘향할’, ‘귀할’이 자석으로 추가 제시되어 있는데 ‘밝힐’, ‘향할’이 ‘벼슬’보다 먼저 제시되었다. 이는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章也嚮也公’ 순서와 일치한다.

(26) 神

『훈몽』: 신령

『주천』: 귀신, 정신

『자류』: 귀신

『석요』: 귀신

『신자』: 검, 턴신, 령검할, 신명

‘神’의 자석은 『훈몽자회』의 ‘신령’ 이후 ‘귀신’으로 이어지다가 『신자전』에는 ‘신명’으로 나온다. 이외 『신자전』에는 ‘검’²²⁾이 제일 먼저 자석으로 제시되고 ‘귀신’, ‘신명’과 유사 의미의 자석 ‘턴신’, ‘령검할’이 나온다. 동일 의미 범주에서 여러 어휘로 제시한 『신자전』의 자석은 이전 문헌의 자석에 비해 구체적이고 풍부한 어휘 정보를 보여준다.

(27) 戶

『훈몽』: 입

『주천』: 만호, 지계

『자류』: 지계

『석요』: 지계문

『신자』: 지계, 백성의집

‘戶’의 자석은 『훈몽자회』의 ‘입’ 이후 ‘지계’, ‘지계문’이 일반적이다. 『훈몽자회』의 ‘입’은 출입구를 뜻하는 다의어 자석 어휘로 볼 수 있다. 이후 ‘문(門)’의 의미 ‘지계’, ‘지계문’이 자석으로 수록되었고, ‘집’을 뜻하는 ‘만호’, ‘백성의집’도 자석으로 수록되었다. 『신자전』의 ‘백성의집’은 한문 자석이 ‘편호(編戶)’인데 이는 “호적에 편입하거나 호적을 편성함. 또는 그 집”²³⁾을 뜻한다.

(28) 府

『훈몽』: 마슬, 대궐, 제王겨신디

『주천』: 마을, 장부

22) 사람에게 화(禍)와 복(福)을 내려 준다는 신령(神靈) 〈표준〉

2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자류』: 마을
 『석요』: 마알
 『신자』: 고집, 마을

‘府’의 자석은 『훈몽자회』에 제일 많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훈몽자회』에 제시된 자석 ‘대궐’, ‘제王겨신딤’은 이후 문헌에 자석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을’만 자석으로 지속된다. 이외 자석으로 ‘장부’가 『주해천자문』에 있고 『신자전』에는 곳간의 의미 ‘고집’²⁴⁾이 자석으로 나온다. 『신자전』에는 앞선 시기의 문헌에 제시된 자석들이 대체로 수록된 편이지만 ‘대궐’, ‘제王겨신딤’이 ‘府’의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시대성을 반영한 자석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9) 邑
 『훈몽』: 고을
 『주천』: 고을, 슬플
 『자류』: 고을
 『석요』: 고을
 『신자』: 골, 훌훌눗길, 답답할

‘邑’의 자석은 ‘고을’이 공통적이다. 『자전석요』에는 ‘-일흠’이 결합된 총칭의 자석 ‘고을일흠/고을일흠’의 표제한자가 122자인데 ‘邑’, ‘州’, ‘治’, ‘顯’, ‘郡’ 5자만 자석이 ‘고을’이다.²⁵⁾ 『신자전』에는 자석 형태가 ‘골’이다. 『주해천자문』에 ‘고을’과는 이질적인 의미의 자석 ‘슬플’이 있고 『신자전』에는 더욱 확대된 ‘훌훌눗길’, ‘답답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훌훌눗길’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특이형

24) 곳집. 庫 고집 고(『아학편』상9)

25)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 일흠’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 25권, 2003, pp. 195-313 참조.

태의 어휘이다.

(30) 市

『훈몽』: 저제

『주천』: 살, 저제

『자류』: 저지

『석요』: 저자

『신자』: 저자, 장, 흥정할

‘市’의 자석은 ‘저자’가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에 ‘저자’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살(買)’이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도 현대어 ‘장’과 동사 ‘흥정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전』의 자석은 ‘市’의 활용을 좀더 유연하게 하는 정보 제시라고 할 수 있다.

(31) 箱

『훈몽』: 상자

『주천』: 곳집, 상자, 수뢰전, 집

『자류』: 상자

『석요』: 상자

『신자』: 상자, 곳집, 수레고간

‘箱’의 자석은 ‘상자’가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 『신자전』에 이를 확장한 ‘곳집/고집’, ‘수레고간/ 수뢰전’, ‘집’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수레고간’과 ‘수뢰전’은 사전이나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수레’와 ‘곳간’, ‘전’이 각각 결합한 어휘로 한문 자석 ‘車服’, ‘車內容物處爲箱’을 통해 ‘수레를 보관하는 공간’ 혹은 ‘수레에 물건을 놓고 파는 전’의 뜻으로 짐작된다.

(32) 纓

『훈몽』: 긴, 꾸리, 솟동

『주천』: 느뭇, 썬

『자류』: 관끈

『석요』: 관끈

『신자』: 갓끈, 가슴거리

‘纓’의 자석은 ‘끈’이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에 ‘긴’, ‘꾸리’, ‘솟동’ 3개 자석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신자전』에 와서는 자석이 ‘갓끈’, ‘가슴거리’로 제시되었다. 『신자전』에서는 현대적인 언어 표현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해천자문』의 ‘느뭇’은 여타의 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자석이다.

(33) 丹

『훈몽』: 불글

『주천』: 단사, 불글

『자류』: 불을

『석요』: 불을

『신자』: 불을, 주사, 맘, 어엿불, 채색할

‘丹’의 자석은 ‘불다’가 공통적이다. 『주해천자문』에 ‘단사(丹砂)’가 추가 제시되었고 『신자전』에 자석이 ‘주사’²⁶⁾로 나온다. 『신자전』에는 이외에도 ‘맘’, ‘어엿불’, ‘채색할’ 3개 자석이 더 제시되어 이전 문헌에 비해 많은 수의 자석이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특히 『자전석요』와 비교했을 때 자전으로서의 특징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6) 한문 자석은 ‘朱砂’가 아니고 『주해천자문』과 동일한 ‘丹砂’로 되어 있다.

(34) 笙

『훈몽』: 싹

『주천』: 싹황, 자리

『자류』: 싹황

『석요』: 생황

『신자』: 생황, 대자리

‘笙’의 자석은 악기명 ‘생황’이 공통적이다. 이외 자석으로 『주해천자문』에 ‘자리’가 있고 이것이 『신자전』에는 ‘대자리’로 더 구체적인 의미의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전운옥편』의 ‘竹席’을 반영한 것이다.

(35) 禽

『훈몽』: 새

『주천』: 사로자블, 새

『자류』: 새

『석요』: 새

『신자』: 새, 사로잡을

‘禽’의 자석은 ‘새’가 일관된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동사 자석 ‘사로자블/사로잡을’이 자석으로 추가 제시되었는데 한문 자석은 “戰勝執獲”이다.

(36) 枝

『훈몽』: 가짓

『주천』: 가지, 견딜

『자류』: 가지

『석요』: 가지

『신자』: 가지, 헛허질, 버틸, 손마디

‘枝’의 자석은 ‘가지’가 일관된다. 이외 『주해천자문』에 자석 ‘견틸’이 있고 이것이 『신자전』에는 ‘버틸’로 자석이 제시되었다. ‘견디다’와 ‘버티다’가 유의어지만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의 자석이 동일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에서 유의어 자석 수록의 특징적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문헌에 제시하는 자석 어휘의 선택적 양상으로 본다. 『신자전』에는 ‘가지’, ‘버틸’ 이외에도 ‘헛허질²⁷⁾’, ‘손마디’ 2개 자석이 더 제시되었다.

(37) 稼

『훈몽』: 시물

『주천』: 곡식시물, 벼

『자류』: 심을入

『석요』: 곡식시물

『신자』: 여름지을, 심을

‘稼’의 자석은 『훈몽자회』에서부터 동사 ‘심다’가 공통의 의미자질로 나타난다. 『주해천자문』과 『자전석요』에 ‘대상’의 의미자질을 더한 자석 ‘곡식시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중세어 ‘여름지을’이 제시되었다.²⁸⁾ 『신자전』에 제시된 자석 ‘심다’와 ‘여름지을’은 의미 중복성이 있으나 포괄적 의미와 세부적 의미의 자석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한자 해독의 유연성을 더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7) 『고어사전』에 표제어로는 ‘헛글다’, ‘헛틀다’로 나오는데 이들에 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헛글다: 흐트러지다 헛틀다, 헐다. 헛글 문 紊(유합하59), 헛글고 싯근 文書 다주어 후리치고(古時調 靑丘)

헛틀다: 흐트러지다 헛틀다, 헛글다, 헐다

28) 서재극(1976:238)에서 이를 ‘種穀’으로 풀이하며 중세어 ‘녀름짓다(農)’, ‘녀름지시(農事)’가 방언에 ‘여름지이’로 남아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대국어 사전 <우리말샘>에 표제어로 ‘여름지이’가 있다. 『신자전』에는 ‘菓’의 자석으로 ‘여름지’(二, 28b)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서재극(1976:233)에서는 ‘여름(果)’에 접미사 ‘-지’가 붙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해천자문』에만 자석 ‘벼’가 제시되어 있다.

(38) 驤

『훈몽』: 봄놀

『주천』: 들, 들릴

『자류』: 달닐

『석요』: 속과썰

『신자』: 말썰, 날칠

‘驤’의 자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훈몽자회』의 자석 ‘봄놀’은 ‘驤’ 이외에도 ‘翱’, ‘騰’, ‘翔’, ‘躍’, ‘驤’, ‘躑’의 자석 어휘이기도 하다. ‘봄놀다’는 ‘날뛰다’, ‘뛰놀다’의 뜻인데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에 각각 ‘들릴’, ‘달닐’, ‘속과썰’로 자석이 제시되었다. 『주해천자문』에만 ‘들다’가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전』에는 ‘말썰’, ‘날칠²⁹⁾’로 앞선 문헌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미의 자석을 모두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39) 祀

『훈몽』: 제홀

『주천』: 제스, 히

『자류』: 제스, 히

『석요』: 제사

『신자』: 제사, 해

‘祀’의 자석은 ‘제사’가 공통적인데, 『훈몽자회』에만 ‘제(祭)’에 ‘하다’가 붙은 동사 자석 어휘가 제시되었다. 이후 문헌에는 모두 명사 ‘제사’로 자석이 제시되었고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신자전』에는 자석 ‘히(年)’가 추가되었다.

29) 날치다: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며 기세를 올리다.<표준>

(40) 績

『훈몽』: 삼 사물

『주천』: 공, 질삼

『자류』: 덜습

『석요』: 길쌈

『신자』: 나이, 길삼, 공, 일울, 이을, 일

‘績’의 자석은 ‘길쌈’의 의미가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의 자석 ‘삼 사물’은 풀이형 자석으로 길쌈의 한 과정을 자석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문헌에는 모두 명사 ‘길쌈’으로 수록되었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공’이 자석으로 추가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이 외에도 ‘나이³⁰⁾’, ‘일울’, ‘이을’, ‘일’ 4개 자석이 더 제시되어 있다.³¹⁾ 이들은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緝麻成也繼也事也功業勩同”과 일치한다.

(41) 孰

『훈몽』: 뉘

『주천』: 누구, 닉을

『자류』: 누구

『석요』: 누구

『신자』: 누구, 어느, 아모, 살펼

‘孰’의 자석은 ‘누구’가 공통적이다. 자석 ‘닉을’은 『주해천자문』에만 나온다. 『신자전』에는 자석이 4개 나오는데 이중 ‘누구’, ‘어느’, ‘아모’는 이전 문헌에 일관되게 제시된 자석 ‘누구’를 확대한

30) 한문 자석은 ‘緝麻’로 ‘피륙’을 뜻한다.

31) 『신자전』의 복수 자석은 해당 한자가 쓰인 문헌의 용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기에 복수 자석 상호간에 일관된 의미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복수 자석들을 통해 해당 한자의 쓰임의 양상과 개별 자석 상호간의 의미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부정칭 어휘 자석들이다. 이외 ‘살필’도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孰’의 자석도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誰也何也審也食飪熟通”과 일치한다.

(42) 聖

『훈몽』: 성신

『주전』: 성인, 통명

『자류』: 성인

『석요』: 성인

『신자』: 착할, 통할

‘聖’의 자석은 『신자전』이전 문헌에는 ‘성인’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신자전』에는 자석 어휘로 ‘성인’은 없다. ‘성인’의 의미 자질과 연관된 형용사 ‘착할’이 자석으로 제시되고 『주해천자문』의 ‘통명’과 유사한 ‘통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자전석요』의 자석은 해당 한자 ‘聖’의 용례 단어이기도 하다. 자전으로서의 뜻풀이는 『신자전』의 자석이 좀더 부합하여 독자 이해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43) 賢

『훈몽』: 어덜

『주전』: 어덜, 나을

『자류』: 착할

『석요』: 착할

『신자』: 어진이, 어질, 조할, 나을

‘賢’의 자석은 ‘어질다’와 ‘착하다’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 『자류주석』과 『자전석요』에 ‘착할/착할’이 자석으로 나오고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신자전』에는 ‘어덜/어질’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이외 『신자전』에는 사람의 의미자질을 더한 자석 ‘어진이’가

있고 ‘어질다’와 유사 의미인 ‘조홀(善也)’, ‘나홀(勝也)’도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유사 의미지만 『신자전』에서는 품사와 단어 형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44) 信

『훈몽』: 미들

『주천』: 기별, 미들, 밋블

『자류』: 민썰

『석요』: 밋을

『신자』: 미들, 밋블, 정성, 마즐, 징험할, 잇흘밤잘, 보람, 인, 도장

‘信’의 자석은 ‘믿다’가 공통적인데 문헌마다 어휘의 형태가 ‘미들’, ‘미들’, ‘밋블’, ‘민썰’, ‘밋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훈몽자회』의 ‘미들’이 『신자전』에도 있다. ‘믿다’ 의미 이외 『주해천자문』에 ‘기별’이 제시되었다. 『신자전』에 ‘기별’은 자석으로 없고 이전 문헌에 자석으로 제시되지 않은 ‘정성’, ‘마즐’, ‘징험할’, ‘잇흘밤잘’, ‘보람’, ‘인’, ‘도장’ 7개 자석이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과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문헌 간 자석 수록의 차이가 크다.

(45) 尊

『훈몽』: 존홀

『주천』: 노플, 술준

『자류』: 늑홀

『석요』: 존귀할

『신자』: 【존】 늑홀, 어른, 공경할 【준】 술준

‘尊’의 자석은 ‘높을’, ‘존귀하다’가 공통 자석이다. 자석의 형태는 고유어 ‘노플/늑홀’, 한자음 ‘존’에 ‘하다’를 붙인 ‘존홀’, 한자어 ‘존귀(尊貴)’에 ‘하다’를 붙인 ‘존귀할’ 등 다양하다. 『신자전』에는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과 일치하는 자석 ‘어른’, ‘공경할’도 제시

되었는데 ‘눕홀’, ‘어른’, ‘공경할’이 의미적 유사성을 지녀 ‘尊’의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한다. 이외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제시된 자석 ‘술준’은 한자음을 달리하여 한자음 [준]에 해당하는 자석으로 구별 제시한 것이다.

(46) 顧

『훈몽』: 도라불

『주천』: 도라불, 싱각

『자류』: 도라불

『석요』: 도라불

『신자』: 돌아불, 돌보아줄, 도리어

‘顧’의 자석은 ‘돌아불’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외 『주해천자문』에 추가 자석으로 ‘싱각’이 있고, 『신자전』에는 ‘돌보아줄’, ‘도리어’가 추가 제시되어 있다. ‘돌보아줄’은 ‘돌아불’의 다의관계 어휘 자석으로 볼 수 있고, ‘도리어’는 ‘돌아불’의 의미자질 [방향]의 차원에서 유사성이 있는 부사어 자석 어휘이다.

(47) 語

『훈몽』: 말슴

『주천』: 닐을, 말슴

『자류』: 물슴

『석요』: 론난할

『신자』: 말삼, 말할

‘語’의 자석은 명사 ‘말씀’과 동사 ‘말하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명사, 동사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훈몽자회』, 『자류주석』에는 명사 자석만, 『자전석요』에는 동사 자석만 제시되었다.

(48) 非

『훈몽』: 월

『주천』: 그를, 아닐, 외다홀

『자류』: 안닐

『석요』: 아니

『신자』: 아닐, 나물하, 어겔

‘非’의 자석은 부정 의미 ‘아니/아닐’이 공통적이다. 『훈몽자회』의 중세 어휘 자석 ‘월’이 『주해천자문』에만 ‘외다홀’의 형태로 나오고 『자류주석』, 『자전석요』, 『신자전』에는 모두 ‘아닐’, ‘안닐’, ‘아니’ 형태로 각각 제시되었다. 『주해천자문』의 3개 자석은 모두 부정 의미 어휘로 상호 유의적이다. 『신자전』에도 ‘나물하³²⁾’, ‘어겔’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나물하’는 『신자전』에만 제시되었다.

(49) 譽

『훈몽』: 기릴

『주천』: 기릴, 기림, 즐길

『자류』: 길일

『석요』: 기릴

『신자』: 기릴, 질길

‘譽’의 자석은 ‘기릴’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주해천자문』에 명사형 자석 ‘기림’이 있고 별개의 의미 자석 ‘즐길’이 추가 제시되었다. 『신자전』에는 ‘즐길’의 방언형 ‘질길’이 제시되었다.

(50) 罪

『훈몽』: 허믈

32) 한문 자석은 ‘髣也’이다. 중세어 형태는 ‘나므라다’, ‘나므라다’, ‘나므래다’이다 宣祖內賜本 內訓에 ‘느미 옷과 일언 그르슬 나므라디 말며 毋髣衣服成器(1:9)’가 나온다.

『주천』: 그물, 허물
 『자류』: 허물
 『석요』: 죄줄
 『신자』: 고기그물, 허물

‘罪’의 자석은 『자전석요』에만 동사 자석 ‘죄주다’³³⁾이고 이 외 4개 문헌에는 명사 ‘허물/허물’이 공통 자석이다. 이와 별개의 의미 자석으로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그물’이 있는데 『신자전』에는 ‘고기그물’로 의미가 더 상세한 자석이다. 이는 한문 자석 ‘魚罔’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51) 弱
 『훈몽』: 약홀
 『주천』: 약홀, 어릴
 『자류』: 약홀
 『석요』: 약할
 『신자』: 못생길, 어릴, 라약할, 분일, 절늬발이, 죽을, 패할, 몸져누을

‘弱’의 자석은 ‘약할’이 공통적이다. 이외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 ‘어릴’이 있고 『신자전』에는 ‘못생길’, ‘라약할’, ‘분일’, ‘절늬발이’, ‘죽을’, ‘패할’, ‘몸져누을’ 7개 자석이 더 제시되어 있다. 『신자전』에는 총 9개 자석이 나오는데 이는 『자전석요』를 비롯한 4개 문헌의 자석 양상과 차이가 크다. 『신자전』의 자석 중 ‘분일’은 『고어사전』이나 현대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인데 한문 자석 ‘纖弱體柔貌’³⁴⁾를 통해 ‘가냘프고 고운 모습’의 뜻을 알 수 있다. 용례로 『子虛賦』의 ‘嫵媚纖弱’을 들었다.

33) 죄에 대하여 벌을 주다. 『표준국어대사전』 詳考하야 罪주느니(『석보상절』 9:38)

34) 이는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에 나타나지 않는다.

(52) 學

『훈몽』: 비울

『주천』: ㄹ꺄꺔, 비홀, 학교

『자류』: 비울

『석요』: 배울

『신자』: 배홀, 께꺔, 학교, 글방, 고남, 배홈, 공부, 나

‘學’의 자석은 ‘배울’이 공통적이다. 형태는 문헌마다 ‘비울’, ‘비홀’, ‘비울’, ‘배울’, ‘배홀’로 각각 나타난다. 『신자전』에는 명사형 ‘배홈’도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동일 의미 범주 안에서 『주해천자문』에 ‘ㄹ꺄꺔’, ‘학교’ 2개 자석이 더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껴꺔’, ‘학교’, ‘글방’, ‘고남’, ‘공부’, ‘나’ 6개 자석이 더 제시되었다. 이 중 ‘고남’은 사전에서 찾기 어려운 어휘인데, 『신자전』에 한문 자석 ‘如學堂學校’에 해당하는 국문 자석으로 ‘학교° 글방° 고남°’ 3개 자석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남’이 ‘학교’, ‘글방’과 유의관계의 어휘로 파악된다.

(53) 才

『훈몽』: 지꺔

『주천』: 겨요, 지목, 지조

『자류』: 지도

『석요』: 재조

『신자』: 만, 시래, 재조, 능할, 바탕

‘才’의 자석은 ‘재주’가 공통적이다. 문헌에 따라 형태는 ‘지꺔’, ‘지조’, ‘지도’, ‘재조’로 각각 나타나는데 ‘재주’는 없다. 이외 『주해천자문』에 ‘지조’와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단어 ‘지목’과 상이 의미 자석으로 부사 ‘겨요’가 제시되었다. 『신자전』에는 ‘재조’ 이외 ‘만’, ‘시래’, ‘능할’, ‘바탕’이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만’과 ‘시래’는 사전이나 여타 문헌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이다. 한문 자

석 ‘藝也’에 해당하는 국문 자석으로 ‘만’, ‘시래’, ‘재조’가 나란히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 ‘만’, ‘시래’, ‘재조’가 유의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재극의 연구³⁵⁾에서 ‘만’과 ‘시래’를 ‘재주의 옛말’³⁶⁾로 풀이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54) 嚴

『훈몽』: 엄엄홀

『주천』: 경계홀, 식식홀

『자류』: 엄위

『석요』: 엄할

『신자』: 굿셀, 엄할, 그굴, 늡홀, 공경할, 식식할, 흑독할, 계엄할

‘嚴’의 자석은 ‘엄하다’가 일반적이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엄하다’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는데 『주해천자문』에는 자석으로 ‘엄할’은 없고 ‘경계홀’, ‘식식홀’이 제시되었다. 『신자전』에는 ‘굿셀’, ‘그굴’, ‘늡홀’, ‘공경할’, ‘식식할’, ‘흑독할’, ‘계엄할’로 유의 단어 다수를 자석으로 제시하여 해당 한자 이해와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신자전』의 자석 중 ‘그굴’은 사전류나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신자전』에 한문 자석 ‘威也’에 해당하는 국문 자석으로 ‘엄할’ 그굴이 병렬 제시된 것이나 용례로 제시한 『祭禮』의 ‘嚴威嚴恪’을 미루어 ‘엄할’과 유의 어휘인 것을 알 수 있다.³⁷⁾

35) 서재극,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國文學研究』 5집, 1976, pp. 229~232.

36) 이는 『문세영 국어대사전』에 근거한 것이다. 더불어 만주어에 ‘재간있는’ 뜻을 지닌 형용사 ‘maŋ’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래’에 대해서는 “중세어 ‘어루시러(能), 시러(得), 시러곰, 시르며’에서 ‘실-(有才能)’을 생각할 수 있다. ‘-에’는 접미사로”로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才’의 자석 ‘늡할’도 이해의 근거로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7) 서재극(1976:235)에서도 ‘그굴’을 ‘威也’로만 풀이하였다.

(55) 訓

『훈몽』: ㄴㄹ칠

『주천』: ㄴㄹ칠, 훈고

『자류』: 갈을칠

『석요』: 갈아칠

『신자』: 가라칠, 인도할, 경계할, 뜻일너줄, 주넬

‘訓’의 자석은 ‘가르칠’이 공통적이다. 문헌마다 ‘ㄴㄹ칠’, ‘갈을칠’, ‘갈아칠’, ‘가라칠’로 각각 나타난다. 『주해천자문』에는 해당 한자 ‘訓’의 용례 단어 ‘훈고’가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가르칠’과 유의성을 지닌 ‘인도할’, ‘경계할’, ‘뜻일너줄’, ‘주넬’ 4개 자석이 더 제시되어 있다.

(56) 寵

『훈몽』: 스랑홀

『주천』: 필, 스랑

『자류』: 괴일

『석요』: 총애할

『신자』: 사랑, 고임, 은혜, 영화, 첩

‘寵’의 자석은 ‘사랑’, ‘사랑하다’가 보편적이다. 중세어 ‘괴다’와 현대어 ‘사랑’이 문헌마다 다르게 자석으로 제시되었는데 『훈몽자회』에 ‘스랑홀’로 제시되었고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스랑/사랑’과 ‘필’, ‘고임³⁸⁾’ 모두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자류주석』에는 중세어 ‘괴일’만 자석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전석요』에는 ‘寵’의 용례 단어 ‘총애할’이 제시되었다. 『신자전』에는 이 외에도 ‘은혜’,

38) 기본형은 ‘고이다’, ‘고이이다’이다. ‘괴다’와 같은 뜻으로 ‘사랑을 받다’, ‘사랑하다’이다. 동문유해(1748)에 ‘고이이다 被寵’(上31)가 나온다. 선조판 소학언해(1586)에 ‘太武의게 고임이 잇더니 有寵於太武’(6:39)가 있다.

‘영화’가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첩’³⁹⁾까지 제시하여 개별 한자의 의미를 매우 정밀하면서도 폭넓게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57) 愛

『훈몽』: 드술

『주천』: 스랑, 앓길

『자류』: 샤랑

『석요』: 사랑할

『신자』: 사랑, 친할, 은혜, 어엿비역일, 괴일, 사모할, 측은이역일, 앓길

‘愛’의 자석은 ‘사랑/사랑하다’가 공통적이다. 『신자전』에는 고어 ‘괴일’도 자석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외 문헌에 ‘愛’의 자석으로 ‘괴다’는 없다. 다만 『훈몽자회』에 고어 ‘드술’이 자석 어휘로 제시되었다. 『주해천자문』에 ‘사랑’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앓길’이 자석으로 함께 제시되었는데 『신자전』에는 ‘사랑’, ‘앓길’ 외 ‘친할’, ‘은혜’, ‘어엿비역일’, ‘괴일’, ‘사모할’, ‘측은이역일’ 6개 자석이 더 제시되었다. 모두 ‘사랑’을 기본의미로 한 동일 의미 범주의 자석들이다.

(58) 壹

『훈몽』: 올⁴⁰⁾

『주천』: 인온, 전일, 혼

『자류』: 한

『석요』: 전일할

『신자』: 전일할, 오로할, 한결, 통일할, 순박할, 막힐

‘壹’의 자석은 5개 문헌에 공통적인 것은 없다. ‘오로지’, ‘전일/

39) 이는 『전운옥편』의 한문자석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40) 오로지

전일하다'가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전석요』, 『신자전』에 자석으로 나오고⁴¹⁾ 『자류주석』에는 수(數)의 의미 '한'만 자석으로 제시되었다.⁴²⁾ 『신자전』에는 '전일/전일하다'와 유의성이 있는 '오롯할', '한결', '통일할', '순박할', '막힐' 5개 어휘가 자석으로 더 제시되어 있다.

(59) 八

『훈몽』: 여덟

『주천』: 분별, 여덟

『자류』: 여덟

『석요』: 여덟

『신자』: 여덟, 여덟

‘八’의 자석은 ‘여덟’이 일관된다. 『주해천자문』에 ‘여덟’과는 상이한 의미의 자석 ‘분별’이 있을 뿐이다. 다수의 자석이 제시되는 것이 특징인 『신자전』에도 ‘八’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미 자석만 제시되어 있다. 다만 ‘여덟’, ‘여덟’로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60) 萬

『훈몽』: 일만

『주천』: 벌, 일만

『자류』: 일만

『석요』: 벌

『신자』: 밭, 만출, 골, 만

41) 수의 의미 자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一’이 수의 의미로 쓰였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42) 『자류주석』의 체재를 볼 때 매 표제한자마다 간략한 국문 자석 아래 상세 의미의 한문 자석을 병기하였으므로 ‘전일’의 의미는 한문 주석으로 나타내었다.

‘萬’의 자석은 ‘일만’과 ‘벌’이 주요 자석으로 나온다. ‘일만’이 『자전석요』를 제외한 4개 문헌에 모두 나오는데 『자전석요』에는 이와 상이한 ‘벌(蜂)’만 자석으로 제시된 것이 특이하다.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벌’과 ‘일만’이 모두 자석으로 되었고 『훈몽자회』와 『자류주석』에는 수의 의미 자석 ‘일만’만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을 볼 때 ‘萬’의 자석은 ‘일만’보다는 ‘벌(蜂)’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외에도 『신자전』에는 ‘만춤’, ‘꿀’이 자석으로 제시되었다.

(61) 左

『훈몽』: 월

『주천』: 도울, 월

『자류』: 월

『석요』: 좌편

『신자』: 원, 월, 글흘, 증거할, 도울

‘左’의 자석은 ‘외다’가 공통적이다. 형태는 ‘월’, ‘원’으로 나타나는데 『자전석요』에는 한자어 ‘좌편’으로 제시되었다. 『자전석요』의 자석 ‘좌편’은 한문 자석이 ‘右之對’로 방향성의 의미가 강하다. 이에 비해 『훈몽자회』, 『주해천자문』, 『자류주석』, 『신자전』의 ‘원’, ‘월’은 ‘그르다’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외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에는 ‘도울/도을’이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원’, ‘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흘’, ‘증거할’까지 총 5개의 자석이 제시되었다.⁴⁴⁾

43) 이는 전운의 한문 자석 “蜂名千戚舞數名十千万同”의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44) 『주해천자문』과 『신자전』의 자석은 전운의 한문 자석 “右之對助也佐通”과 일치한다.

(62) 外

『훈몽』: 밋

『주천』: 물리칠, 밋

『자류』: 받

『석요』: 밋것

『신자』: 밋, 밋것, 멀리할, 외델

‘外’의 자석은 ‘뵈’, ‘바깥’이 보편적이다. 문헌마다 ‘밋/받’과 ‘밋것’이 선택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신자전』에는 ‘밋’과 ‘밋것’ 두 어휘 모두 제시되었다. 이 외 『주해천자문』에 ‘물리칠’이 자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전』에는 ‘멀리할’, ‘외델⁴⁵⁾’이 제시되었다. 『전운옥편』의 한문 자석 ‘表也遠也疏斥’과 『신자전』의 자석 어휘가 일치한다.

3.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한자 62자를 대상으로 16세기의 『훈몽자회』에서부터 19세기 『주해천자문』과 『자류주석』, 20세기의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자석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자와 국문에 대한 양방향적 이해와 활용이 필요했던 근대 국한문혼용 시기의 대표적 공구서로서의 자전인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도 기초한자들은 1對多의 양상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기초한자의 높은 사용 빈도에 정보의 수록이 반비례적 혹은 비례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자전의 상이한 양상은 자전의 정보 제시가 주독자층이나 전거 문헌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편찬 취지와 집필자들의 경향성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의 언어 환경

45) 외딤하다: 외대(外待)하다. 푸대접하다. “문병희미 무방희거늘 엇지 이딤도록 외딤히느뇨”(落泉登雲4:9)

에서 『신자전』은 이전 시기 자석 자료들에 수록된 자석뿐만 아니라 의미 범주를 확장한 품사 형태나 유의어 형태, 특이 형태의 단어 등 풍부하게 자석으로 제시함으로써 표제한자를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유연성을 더하였다. 대체로 전문옥편의 한문 자석을 국문 자석으로 충실히 반영하였지만 단순 축자적인 번역으로 국문 자석을 제시하지 않고 그 실용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정보를 유연하게 수록한 것을 기초한자 62자 자석 수록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신자전』은 『자전석요』에 비해 언중들의 언어 정보 필요성을 더욱 충족하는 실용성을 더욱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이 한자 자석의 정립이나 체계화 나아가 고전을 해독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토대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석을 통시적으로 살피는 것은 우리 어휘사나 개별 어휘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용한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남광우, 『古語辭典』, 태학사, 2008.
 정운용, 『字類註釋』, 건국대학교 영인본, 1985.
 지석영, 『字典釋要』,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76.
 최남선, 『新字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육당 전집 편찬 위원회 영인본, 1973.
 최세진, 『訓蒙字會』,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1972.
 『千字文』,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1984.

2. 논문

- 배영환, 「『字訓諺解』에 나타난 ‘釋’에 대하여」,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 제20집, 2003, pp. 109-141.
- 서수백, 「『신자전』(新字典)의 복수 자석 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104호, 2023, pp. 77-103.
- 서재극, 「新字典의 새김말에 대하여」,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國文學研究』 5집, 1976, pp. 223-240.
- 여찬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고을 일흠’ 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과학』 25권, 2003, pp. 195-313.
- 여찬영, 「아가위나무류 한자 자석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77권, 2002, pp. 25-45.
- 俞昌均, 「國語學에 있어서 漢字研究의 位相」,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35권, 1999, pp. 1-22.
- 이응백, 「漢字 새김의 現實化 問題」,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17호, 1989, pp. 81-95.
- 이준환, 「朝鮮廣文會 편찬 『新字典의 體裁, 漢字音, 뜻풀이」, 어문연구학회, 『語文研究』 제40집, 2012, pp. 117-142.
- 전일주, 「강희자전과 한국 초기 자전 비교 연구-『자전석요(字典釋要)』와 『신자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학회, 『한문교육연구』 26호, 2006, pp. 357-384.
- 전일주, 「近代 啓蒙期の 辭典 編纂과 그 歷史的 意義」, 대동한문학회, 『大東漢文學』 17, 2002, pp. 77-104.

3. 단행본

- 강신항, 『全韻玉篇 奎章全韻』, 박이정, 2000.
- 박병철, 『한자 훈석 어휘 연구』, 이회, 1996.
- 이기문,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
- 신경철, 『國語 字釋 研究』, 태학사, 1993.

(투고일: 2024. 8. 20 심사완료일: 2024. 9. 10 게재확정일: 2024. 9. 13)

서수백
소 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주 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13-13
전자우편: sbseo93@cu.ac.kr

[Abstract]

Study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Vocabulary
in *Shinjaje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Basic Kanji -

Seo, Su-B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method and Chinese vocabulary of *Shinjajeon* in detai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collection of *Shinjajeon* more empirically. The 62 basic Chinese characters in *JajeonSeokyo* and *Shinjajeon* in which one to many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appear were compared with from *Hunmongjahoe* in the 16th century to *Juhaecheonjamun*, and *Jryujuseok* in the 19th century, *JajeonSeokyo* and *Shinjajeon* in the 20th century, we examined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pattern. *Shinjajeon* presents not only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contained i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materials of the previous period, but also the parts of speech, synonyms, and unusual forms of words that expand the meaning category, adding flexibility in learning and using the headwords. This research process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systematization of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but also to deciphering the classics and compiling dictionaries.

Key words: *Shinjajeon*, *JajeonSeokyo*,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e:Many, Basic Chinese Characters, *Hunmongjahoe*, *Juhaecheonjamun*, *Jaryujuseok*